



이번호 지면

2019학년도 석사과정 학위수여식 | 2면

지난 2월 25일(월) 오후 3시, 본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수여식이 우당교양관 602호에서 열렸다. 이번 석사학위수여식에는 이재원 정책대학원장, 박무일 정책대학원 교무회사무총장, 강충열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김창복 제48대 총학생회장, 이동수 제57대 총학생회장,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 김경구 제58대 부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및 제63기 신입생 OT | 3면

지난 2월 15일(금) 오후 3시, 본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제63기 입학식이 본교 정경관 506호에서 진행되었다. 이어서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및 제63기 신입생 환영회가 주최되었다. 이번 입학식 및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겸 제63기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는 이재원 정책대학원장과 주임 교수들을 비롯하여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 등 원우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어우러졌다.

최고위정책과정 제62기 수료식 | 4면

지난 1월 31일(목) 오후 5시 30분, 본교 정책대학원 제63기 최고위정책과정 수료식이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63기 최고위정책과정 수료식에는 손창영 제27대 총고정회장, 봉우중 총교무회 사무총장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제63기 최고위정책과정 원우들의 수료식 자리를 빛냈다.

최고위정책과정 제63기 입학식 | 5면

지난 3월 14일(목) 오후 6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제64기 입학식 이 본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社 告 -

정책신문 86호부터는 학기별 1회(4월, 10월) 발행됩니다.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포용적 성장 최정표(KDI, 한국개발연구원장)



유착과 불균형 성장이라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키워냈다.

1997년,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라는 비극을 맞았다. 경제 성장률은 -5.5%까지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7%까지 상승했고, 환율은 달러당 1,995원까지 치솟았다. 30대 재벌 중 17개 재벌이 도산했으며, 부실은행의 파산 또한 16건에 이르렀다.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 경제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졌으며, 이는 부와 소득분배, 기회의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격화되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심화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16년까지 10분위의 가구소득 증가율은 5.9%인데 반해 1분위의 소득증가율은 0.1%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재분배정책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2016년 한국의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 뒤에서 4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고령화도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고령화 속도 뿐 아니라 고령층 빈곤율 역시 높아져가고 있어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빈곤율은 OECD 평균이 10%인데 반해 한국은 40%까지 치솟아 있다.

한국은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고속 성장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관치가 있는데 이는 많은 부작용도 유발했다. 수출주도 정책의 경우는 과도한 대외 의존 경제를 만들었고, 정경

개인에 비해 기업으로 더 많은 소득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재벌의 국가 내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상위 4대(삼성, 현대자동차, SK, LG) 기업집단은 상위 30대 기업집단 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소수 재벌에 귀속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재벌들이 시장을 독점화하고 경제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은 꾸준히 저해되었고 이는 효율성 둔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 오직 소수재벌만 꾸준히 팽창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정치권력과 재벌이 끊임없이 정경유착을 해왔다. 상품시장은 재벌이 독점하고 있고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역시 재벌에게 수요독점되고 있다. 재벌들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갑질을 하며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현재의 한국경제는 50년을 사용한 낡은 집이다. 조세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사개혁, 공공개혁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구조를 개조할 필요가 있다. 개조의 목표는 삶의 질이어야 한다.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고, 복지 역시 증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사회보장 확대, 문화 생활 보급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 패러다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한데, 내수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자립성을 키우며 서비스 산업, 문화산업, 지식산업 등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개편을 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의 대립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전문경영인의 영역을 확대하여 경영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득-소비-투자-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는 포용적 성장이어야 말로 한국경제의 미래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면 높은 삶의 질, 공평한 사회, 안전한 사회, 수준 높은 문화생활이라는 한국형의 새로운 선진국 모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9학년도 후기 정책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정책대학원 소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은 리더십과 멤버십, 지성과 야성의 균형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립 되어 30여년간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본 대학원은 공공성의 배양(公共善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 전문지식의 심화(변화하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의 습득과 그 지식의 정책적 실현을 통해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의 배양(복잡한 사회현상의 진단에 필요한 융합적 사회과학 지식 함양과 이에 기반을 둔 공공문제의 창의적 해결능력과 민주적 리더로서의 소양을 제고하는 교육)을 교육목표로 삼고 인재 양성에 임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및 학과 (석사학위과정, 야간)

- 정치계열
 - 국제관계학과 : 외교, 국방, 통일 분야의 정책전문가 양성
 - 글로벌정치학과 : 세계 여러나라의 정치제도, 정치행태, 정치경제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과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
- 경제계열
 - 경제정책학과 : 경제실무, 경제정책 전문가 양성
 - 조세재정학과 : 재정, 세정에 관한 전문가와 실무자 양성
 - 국토경제학과 : 도시 및 국토개발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
- 행정계열
 - 도시및지방행정학과 : 도시,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 실무자 심화 교육과 공공컨설팅 전문가 양성
 - 감사행정학과 : 감사행정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 양성
 - 사회안전행정학과 :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의 관리 능력, 사회안전정책의 평가와 개발능력을 전문가 양성
- 통계계열
 - 데이터통계학과 : 통계분석 전문가와 실무자 양성

응시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19년 8월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
- 2) 외국소재 정규학교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4년제 대학에서 다른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구비서류

- 1) 제출서류 목록(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2)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3)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파일(입학원서 첨부용) 1매
- 4)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5)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7)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전형일자

- 1) 원서접수 : 2019년 4월 8일(월) ~ 4월 23일(화)
- 2) 면접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8일(수) 19:00 정경관 506호 (18:45까지 착석 완료)
- 3) 합격자 발표 : 2019년 6월 7일(금) 15:00 본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문의처

- ※ 정책대학원 행정실 : 02-3290-1381~2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대학원 홈페이지(<http://kopolicy.korea.ac.kr>) 입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정책대학원장 학위수여식사



재학생 대표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 송사



졸업생 대표 박자은 제56대 부총학생회장 답사



국민의례



2019년도 정책대학원 석사학위수여식 단체 기념사진 촬영

2019학년도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학위수여식

선배와 후배 간 축하하며 고려대 정책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자부심을 나누는 시간 가져

지난 2월 25일(월) 오후 3시, 본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수여식이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602호에서 열렸다. 이번 석사학위수여식에는 이재원 정책대학원장, 박무일 정책대학원 교우회사무총장, 강충열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김창복 제48대 총학생회장, 이동수 제57대 총학생회장,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 김경구 제58대 부총학생회장 등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행사의 식순은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 소개 △학위기 수여 △상장 수여 △대학원장 졸업식사 △교우회장 축사 △재학생대표 송사 △졸업생대표 답사 △교가제창 △폐회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졸업을 하는 원우들에게 이재원 정책대학원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논어에서는 '학문은 여역순행자니 부진즉퇴'라 하여 '학문은 물을 거슬러오르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곧 물러나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역에서도 '천하지사 부진즉퇴 무일정지 비리하여' 세상 일이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반

드시 물러난다."며, 일정한 상태로 있는 일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렇게 초심과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대학원을 통해 두 가지 자산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활용하며 지냈습니다. 이러한 자산과 더불어 고대 가족이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귀한 인연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대학원 생활동안 얻은 것을 반추하며 정진하길 당부했다.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은 "나의 젊음을 고대에 걸어서 고대는 너희에게 세계를 걸겠다.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들께 세계를 걸기로 고대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고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인류의 33만 교우와 후배가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고대가 약속한 세계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 선배님들이 정책대학원에 보여주신 희생과 노력은 항상 후배들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라며 송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박자은 제56대 부총학생회장은 "졸업을 앞두고 지난 2년 반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품으며 함께해주신 이재원 원장님, 만날 때마다 어깨를 다독여주신 주임교수님, 스승님의 사랑과 지도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반동안 교류의 장이자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학교를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이곳에서 만났던 소중한 분들과의 인연과 성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잊지 않고 사회에 나가겠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제58기 동기 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며, "그간 고려대학교의 정책인으로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다독였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사를 전했다.

이어서 마지막 식순인 교가제창을 한 후, 폐회사를 끝으로 2019학년도 제1학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수여식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안암병원 1577-0083
- 구로병원 1577-9966
- 안산병원 1577-7516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의료 인프라]

5,500 여명의 세심한 서비스

2,577 개의 첨단 병상

33만㎡의 갤러리

처음 보는 병원인데,
누구세요?



고려대학교의료원
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및 제63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단체 기념사진 촬영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및 제63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구국이라는 고려대학교의 전통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

지난 2월 15일(금) 오후 3시, 본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제63기 입학식이 본교 정경관 506호에서 진행되었다. 이어서 당일 5시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및 제63기 신입생 환영회가 주최되었다. 이번 입학식 및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겸 제63기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는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선배 원우들과 이재원 정책대학원장을 정책대학원 교수님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어우러졌다.

이날 입학식은 약 3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이어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및 제63기 신입생 환영회 행사는 식전 행사로 △기념품 배부 △신입생 단합의 시간 △고려대학교 응원단 공연, 1부에 △만찬 △기수단 및 내빈 행사장 입장 △개회선언 △국민의례/애국가 제창 1절/묵념 △초청인사 및 내.외빈 소개 △제58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당선 기념패 수여 △총학생회기 인수인계 △제57대 총학생회 활동사항 영상 보고 △제57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공로패 수여 △제58대 총학생회장 환영

사 △제57대 총학생회장 이임사 △정책대학원장 격려사 △교우회 사무총장 축하 △총학생회장단 회장 축하 △연세대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축하 △정책대학원 소개 영상 시청 △제63기 신입생 소개 △신입생 대표 선서 및 배지 전달 △격려금 전달식 △찬조 및 협찬 소개 △케익 절단 및 건배 △기념 촬영 △특별공연(마술사 최민수) 2부에 △축하공연(슈퍼스타 K 볼륨) △사발식 영상물 상영 △막걸리 사발식 및 신입생 전원 배지 수여 △제63기 임원 선출 △폐회 및 학과별 모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원 정책대학원장은 "오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63기 석사과정 입학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시지만 퇴보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기 위해 여기 오셨다고 생각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출범식 및 환영회에서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은 "지속을 박차고 포효하라! 존경하는 신입

생 여러분 자랑스런 정책대학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1905년 고려대학교는 '교육을 통해 국가를 인도하라'라는 교육구국의 신념 아래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우리 민족고대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 기지, 행동이다. 지금까지 그 정신을 이어주신 자랑스런 선배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이어갈 자랑스런 우리 후배분들,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시다."라며 취임사를 마쳤다.

이어서 송인섭 제26대 총교우회장은 "지난 한 해에도 많은 교우님들이 사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분야, 각계각층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다."며, "정책대학원 교우회에 3000여 교우님들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무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동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면 정책대학원 교우회의 일원이 된다. 교우회의 일원으로서 선배 원우님과 교류하시고, 고대인으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축사를 마쳤다.



이재원 정책대학원장 축하



송인섭 제26대 총교우회장 축하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 환영사



이동수 제57대 총학생회장 이임사



“특별한 모임을 위한 교우회관”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 위치한
호텔식 연회장을 만나보십시오.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안함을 갖춘 연회홀,
최상의 서비스와 음식,
교우회관에서는 호텔식 연회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결혼식, 가족행사(돌, 회갑, 칠순), 세미나, 출판회, 기념식, 교우행사
- ▶하계(7~8월) 및 연간 주중 결혼식에는 식료 10%, 음료/주류 5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안암홀



석탑홀



프라자홀

SEOUL
PLAZA
HOTEL

고려 프라자 서울시 성북구 중암동 29-26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내] Tel 02 · 925 · 2310~1 Fax 02 · 924 · 7134 www.seoulplaza.co.kr
교우회관은 서울프라자호텔의 웨딩 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전문적인 호텔식 웨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프라자호텔 외식사업부에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재원 정책대학원장 수료식



손창영 최고위정책과정 제27대 총고정회장 축하



장명욱 최고위정책과정 제63기 회장 축하



수료 축하연 단체사진



최고위정책과정 제63기 수료식 후 단체 기념사진 촬영

최고위정책과정 제63기 수료식

6개월 동안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시간 가져

지난 1월 31일(목) 오후 5시 30분, 본교 정책대학원 제63기 최고위정책과정 수료식이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63기 최고위정책과정 수료식에는 손창영 최고위정책과정 제27대 총고정회장, 봉우중 총교우회 사무총장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제63기 최고위정책과정 원우들의 수료식 자리를 빛냈다.

행사의 식순은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 소개 △수료증서 및 상패수여 △발전기금 기부증서 전달 △최고위정책과정 총교우회 감사패 수여 △정책대학원장 식사 △최고위정책과정 총교우회장 축하 △수료생 대표 답사 △폐회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식이 끝난 후에는 본교 인촌기념관 1층 귀빈식당에서 준비된 만찬을 즐기며 회포를 풀며 건배를 제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재원 정책대학원장은 "오늘 제63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스

티브 코비의 『살인의 속도』라는 책에서는 '개선의 반대행동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퇴보하여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의식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없으면 현상유지는 고사하고 퇴보하고 만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일과를 마치고도 쉬지 않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데 힘썼으며 그 결과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최고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을 수료하시게 되었다."며 석학들의 말을 인용하여 수료자들의 지금까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손창영 최고위정책과정 제27대 총고정회장은 "오늘의 영광스러운 졸업이 있기까지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이 넘치는 최고위정책과정의 모든 여정을 지원하여 주시고 졸업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이재원 정책대학원 원장님, 조형준 부원장님, 교수님,

총고정회 임원님, 그리고 행정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축하했다.

이에 대한 수료생 대표 답사를 맡은 장명욱 최고위정책과정 제63기 회장은 "저명한 강사 여러분의 알찬 강의내용과 교수여러분과 함께 했던 3교시 수업,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체험의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 또한 국내세미나와 해외세미나의 추억도 많이 있다. 입학식을 한 것이 엇그제같은데 벌써 수료식 인사를 하게되어 아쉽기도 하다. 제63기 원우 여러분들과는 13번의 강의시간과 두 번의 국내외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교류가 있었으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한 점에 사과드리며 많이 아쉽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자주 만날 수는 없겠지만 수료 후 정기모임 등을 통한 모임에는 많이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를 나누기를 바란다. 끝으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제63기 원우님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원한다"며 따뜻한 답사를 마쳤다.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연간 75억원! 고대인들이 전기, 가스, 물을 쓰는 데 치르는 비용입니다.
빈 강의실에 전등을 켜놓진 않았는지,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켜놓진 않았는지-
조금만 신경 쓰고 확인해 본다면 많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는 습관, 고대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학교사랑!

<고대를 사랑하는 12가지 방법>

1. 빈 강의실, 아무도 없는 동아리방 전등은 꺼주세요.
2. 냉·난방기 가동할 땐, 창문이 닫혀있나 확인 필수!
3.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실내 온도는 적당히!
4. 햇살 좋잖아요! 겨울엔 차광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5. 개인 냉·난방기 사용은 자제! 사용해도 효율 높은 기기로!
6.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는 가동을 멈춰 주세요.
7. 365일 꽃혀있는 플러그? 사용하지 않을 땐 뽑아 주세요.
8. 컴퓨터는 절전 모드로 설정해 주는 센스, 아시죠?
9. Peak Time(오전11시~오후2시)엔 전기사용을 줄여 주세요.
10. 수도꼭지는 꼭 잠가 주세요. 돌아보고 확인해 보는 여유!
11. 운동 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가까운 층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12. 학교를 내 집처럼 여긴다면 에너지 절약 실천, 어렵지 않겠죠?



고려대학교



최고위정책과정 입학식후 단체 기념사진 촬영

최고위정책과정 제64기 입학식

지식의 안내와 사랑의 힘으로 더욱 훌륭한 삶을 향해 전진하여 나아가길

지난 3월 14일(목) 오후 6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제64기 입학식이 본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제64기 입학식에는 신입 원우들의 입학 축하하기 위해 이병천 최고위정책과정 제28대 총고정회장, 류관석 사무총장, 봉후종 자문위원, 조미순 자문위원, 류상렬 감사, 정은숙 위원장, 박운선 사무부총장, 위도영 사무차장, 김서희 부회장 등의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입학식은 기념만한 행사를 포함하여 총 4시간가량 진행이 되었다. 행사의 식순은 △제1부- 입학식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정책대학원장 인사 △최고위정책과정 총교우회장 축사 △폐회사 △제2부- 제64기 원우 소개 △만찬 순서로 구성되었다.

입학식에서 이재원 정책대학원장은 "우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은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정책전문 인력양성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무수한 정책전문 인재들을 육성해왔고 또 우리나라 정책개발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 특

히 최고위정책과정은 우리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여 국가경영, 문화, 예술 등에 관한 지적 논의를 벌이는 훌륭한 공론장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한국경제신문 최고위평가과정에서 2015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법·행정 분야에서 가장 가고 싶은 최고위과정 1위로 뽑히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 축사의 포문을 열면서 "긍정심리학 행복학 강의로 한 때 하버드 강의에서 가장 인기있는 강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하버드대 칼렌차 교수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그들은 끈임없이 묻고 경이로운 세상을 탐험한다. 나이가 15세이든 115세이든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최고의 전성기이든 당신이 인생이 어느 시기에 있든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배 원우분들, 교수 강사분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상부상조의 인적네트워크로 키워 나가길 바란다. 기회를 만들고, 약자는

기회를 기다린다고 한다. 한 학기동안 많은 기회를 만드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훈 가득한 입학식사를 마쳤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이병천 최고위정책과정 제28대 총고정회장은 "여러분들께서 잠시 일상을 탈피하셔서 우리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으니 새로운 교우님들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우리 3500명의 교우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64기 원우 여러분은 우리나라 통계학의 권위자이신 이재원 원장님과 함께 하니 더욱 행복이고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우회 측면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겠다. 다시 한 번 원우님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회에서 참석하신 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재원 정책대학원장 입학식사



이병천 최고위정책과정 제28대 총고정회장 축사



국민의례



입학식

정책신문 광고 게재 안내

고려대학교 정책신문은 1991년 창간되어 연간 2회 발행하고 있으며 대학원 행사와 원우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사고와 효과적인 집행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원들의 학술적 토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신문은 구독료와 광고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정책신문에 원우 및 교우님들의 개인 및 기업광고를 게재해 주시면 정책신문 운영과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고 게재 문의 : ☎ 02-3290-1380 / e-mail : gre005@korea.ac.kr



석사과정 중국 해외세미나(제57대 총학생회)

중국의 상당한 스케일을 보다

그 옛날 말로만 들었던 중국의 북경을 실제로 방문해 보니 정말로 설레임 그 자체였다.

11월 1일(목)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입국장에 6시50분에 모여 첫 날 일정을 시작했다. 비행기를 타고 나는 창공에서 설레임을 한껏 만끽했고, 잠시 후 점심을 먹고 눈을 떠 보니 중국 공항에 와 있는 것이다. 중국 입국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번거로웠지만, 북경 도착 후 염소봉(염소?)가이드 미팅 후 북경오리를 맛있게 먹고 이화원 관광을 시작했는데, 이화원은 공원 안에 조성된 전각과 탑, 정자, 누각 등의 복합 공간으로 서태후의 권력이 잠자는 장소로 유명하다. 특히, 서태후의 침전이었던 낙수당에서는 묘한 권력의 감정이 느껴진다. 이화원 관광을 마치고 비행기 탑승처럼 철저하게 검문하는 고속열차를 타고 신항으로 출발하여 호텔 투숙 후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호텔방의 천정 높이가 상당히 높았고 방의 크기도 정말 큼직

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크기로 말해주는 듯 했다.

11월 2일(금) 일찍 조식을 먹고 천계산으로 이동했다. 시담대, 문궁대, 여화대 등을 조망하고 유리잔도를 지나는데 어찌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지 이 길을 지날 수 있을까 몇 번이고 되내었다. 결국은 유리잔도를 통과했다. 유리잔도는 정말 사람의 기술치고 너무나 신비롭고 대담했다. 다른 교수님들과 원우님들은 유리잔도를 지나는데 정말 거침없이 지나가는 모습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점심이 되어 산채비빔밥과 닭백숙을 가볍게 먹고 만선산 관광을 시작했다. 코스는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동굴을 셔틀버스로 이동하는데 운전자의 운전은 어찌나 과감하고 파워풀하게 운전하는지 자칫 심장이 떨어질 뻔했다. 바깥으로는 구멍난 절벽으로 수천길 남 떠러지가 보이는데 그 아슬아슬함과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 그 자체였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임주로 이동하여 둘째 날 저녁을 무제한 삼겹살과 중국 독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산뜻함을 가졌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저녁 설레임이 극에 달했는데 염소봉(염소?)가이드는 내일이 더 진짜라고 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역시 방의 크기가 만만치 않았다.

11월 3일(토) 이른 아침 최고 전망의 대상인 팔천협으로 이동했다. 전동차를 탑승하고 부두에 도착하여 유람선으로 팔천협 협곡의 우람함과 장대함에 또 한 번 놀란다. 자연 그대로의 신이 준 선물 그야말로 최고 그 자체였다. 사진을 찍고 또 찍어도 갖고 싶은 절경에 폭 빠져 헤어날 줄을 몰랐다. 유리잔도를 연상케하는 유리천공지성 208미터 엘리베이터 하산도 기분이 날 듯 했다. 저녁이 되어 무제한 고기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북경호텔로 돌아와 세미나를 가졌다.

최고의 정책인이 되고 싶으면 정책대학원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은 학문적 수준, 졸업생의 활약상, 학생활동의 진취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대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05년 고려대학교의 개교와 시대적 변화에 적응·발전해 온 뿌리깊은 전통의 정책대학원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주제인 '유전자 감식에서의 통계학의 응용'은 정말 대단한 내용으로 교수님들과 원우님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어서 '2019 한국경제 전망은?'의 김동현 교수님 그리고 오승곤 교수님의 '최근 미중 통상이슈와 시사점' 역시 최고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너무나 열띤 세미나로 중국 시간 밤 11시(한국시간 밤 12시)를 넘긴지도 모른 채 세미나의 열기가 이어졌다. 늦은 시간 이제는 졸음을 안고 잠을 청했다.

11월 4일(일) 간만에 큰 일정이 없어 편안한 조식을 먹고 북경을 뒤로한채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해외세미나 일정을 조금씩 마무리 한다. 김포에 도착하여 해산직전 원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원우님 모두 진한 향기와 열정이 어우러진 차를 마시며, 다시 모이자는 뜨거운 가족애를 보인다.

끝으로, 태항산 해외 세미나를 멋지게 인도해주신 원장님, 교수님, 김성훈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김용중(60기)원우님의 협조와 지도력, 털털한 웃음에 감사! 홍덕표

(61기)원우님의 침묵속의 따뜻함과 자연같은 표정에 감사! 이성용(61기)원우님의 막내 아님 막내처럼 술선수범에 감사! 이창기(62기)원우님의 언제나 리더의 정신과 만형 노릇에 감사! 장재효(62기)원우님의 술선수범의 리더로 밝고 맑은 표정에 감사! 김대경(62기)원우님의 막내의 소명에 굶은 일 잘해주심에 감사! 전인향(62기)원우님의 사랑 독차지 애교표정 100%에 감사! 최여사님의 노력과 봉사, 애써준 모습에 감사! 이동수회장님의 총체적인 세심한 리더십과 사랑주(60도 술제공)에 감사! 부족한 저와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이춘식(석사 제61기, 조세재정학과)



高대 참기름

www.kosso.co.kr

올해도 **국내산참깨**로 정성들여 만든
고대참기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입금계좌 : 하나 391-910009-93304
예금주 : (학)고려중앙학원 식품사업부



1인

33,000원



2인

60,000원



3인

90,000원

(배송료 포함가)

주문 및 문의 : 080-010-1905

※받으시는 분이 다수일 경우에도 원하시는 주소지로 확실하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식품사업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공헌하는 삶으로 노력



신원철

석사43기(도시및지방행정학과)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수, 종사분야, 정책대학원 입학 동기 등)

저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43기로 입학했고,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 제23대와 제24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 위원장과 남양주시 청림 감사관, 경기도 예산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 역시 다양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이런 전문가 분들과 함께 수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 다양한 행사(자랑스러운 정책인상, 민주평통 대통령상 등)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각 부문별로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정책인상에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정책인상' 은 일년동안 각 분야에서 국가와 교우회를 위해 많은 노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교우들에게 수상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리고 정부 대통령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정책에서는 통일 환경에 부흥하고 안보 의식에 동참하여 2018년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무거운 왕관이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공헌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3.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개인적 신념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획 중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저는 다양한 부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지방 정부 정치, 행정, 교육 부문도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방정부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감사관, 경기도 예산연구원 일을 해오면서도 예산부문도 국민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라 꼼꼼히 살펴보고 신뢰성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학문연구와 교수로서, 먼 미래의 꿈과 희망을 도전하는 학생들의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의 교우회 회원으로서도 항상 지원이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정책대학원 교수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원장님과 부원장님 그리고 각 주임교수님, 또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기들까지 모두 소중한 만남이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가족분들이 닦아 놓으신 길을 더 확장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

현) 남양주시 청렴감사관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 위원장

남양주시 체육회 상임이사 겸 회장

법무부 교육지도위원회 부회장

중원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8년 평화통일 기반구축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범법자선도, 범죄예방 표창 법무부 장관 표창

경기도 제2도교육청 설립추진공로 경기도 교육감상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열중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수, 종사분야, 정책대학원 입학 동기 등)

49기 경제정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박사수료를 하였습니다. 지식의 습득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입학하였고 졸업 후 실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2. 다양한 부문(기부, 농업정책, 전주시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회장, 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사단법인한국장애인케어경남협회 후원회장 등)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각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활동하시면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제 삶의 목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게나마 나누고 봉사하여 모두가 행복해 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농촌체험힐링연합회장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 노인들이 내 부모, 내 가족이라는 마음에서 건강유지를 위한 나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식품을 나누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러한 건강식품은 좋은세상상봉동협회의회에서 추진

하는 사업에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기부를 통해서도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8월에 농촌체험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장학금 지급의 공로로 '2017 대한민국환경대상' 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국제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글로벌기부문화공헌 대상에서 독거노인돕기와 결혼가정 장학금 지급, 농촌봉사활동 등에 대한 활동을 인정받아 사회발전공헌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불혹이 넘은 나이에 대학 공부에 도전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기부하는 삶이 힐링이라 생각하여 시작한 것이라 생각지도 못한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많이 기부하여 치유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부와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정적으로, 또 삶의 일부를 기부하며 사회에 다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3.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계획 중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저는 어릴적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쉽지 않았습니 다. 작은 정성이지만 지속적으로 기부 및 장학금을 모료의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문예지인 '문예사조' 에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시집을 출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제가 작사 및 작곡한 것을 음악을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가수를 발굴 중입니다.



하만진

석사49기(경제정책학과)

4. 마지막으로 정책대학원 교수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만났던 교수님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자기 개발과 혁신으로 이어가셨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지금 하는 활동에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한 교수로서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활동하겠습니다.

모든 교수회 여러분.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빛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력

현) 농촌체험힐링연합회 회장

경북대학교 외래교수

학교운영위원회 진주시협의회 회장

(사)한국장애인케어 경남협회 후원회장

JS 기획(주) 회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49기 수석부회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회 상임부회장





정책전문가 특강 -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이병용 교수(전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정부정책결정은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나타난 정책의제를 놓고 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광의의 개념으로서 정부정책결정과정은 정책이 결정하고 나면 정책을 집행하고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정책이 유효한 결과로 나왔는지 분석하고 그 장단점, 위기요인, 기회요인을 피드백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결과는 정책을 결정이후 실수를 겪지 않고 초기의도를 반영해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이다. 그래야 기회비용이나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나라에서나 정부정책이 본연의 의도대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처음정책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추적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이후에 갈등을 줄이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처음 의도한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이 있다. 외적인 요인은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반영하는 것이다. 외적인 요인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나타난 것에 대한 정책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공약을 기초로 국정과제를 내놓는데 그 국정과제를 내놓는 것이 인수위원회이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 국정과제를 가지고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게 된다. 부처 간에도 역시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제는 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류인플루엔자 문제에 경우, 매물을 함에 있어서 농림부가 주관부처나 매물은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매물 이후 환경영향은 환경부와 협의, 매물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

인 정책을 위해서는 두가지 안목이 필요하다. 먼저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정신이 정부에게 필요하다. 예컨대 스페터의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란 새로운 경영방식, 생산방식으로서의 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이끄는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또는 불확실성에 도전함으로써 얻는 대가를 기업가정신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그대로 정부에 대입을 해야된다. 즉, 모든 정책가들은 천지개벽을 하고 나라를 갑자기 끌어올리는 정책은 없다는 것에 착안하되 불확실하더라도 도전하고 기존의 방식을 조금 변화시키는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이 정부에도 필요하다. 둘째는 Benedetto Croce의 말을 인용하면 "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이다. 즉, 모든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에 가치와 결부시켜 평가를 해야한다. 오늘날의 눈으로 오늘날에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www.lh.or.kr

2,461개의 자연

6억 1,800만㎡의 숲터

5,516km의 도로

227만 채의 보금자리

15,932km의 생활수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매일 편리하게 오가는 출근길
5천만 국민이 편리하게 쓰는 상하수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녹지공원
가족의 더 큰 사랑과 행복이 자라는 내 집
세상 어느 곳보다 살기 편한 대한민국

LH가 만드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자랍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LH가 하는 일은? | 공공택지의 80% 공급 (여의도 면적의 213배) | 총 448만호의 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의 80%) | 장기임대주택의 72% 건설 (시세 30-60%의 저렴한 임대료) | 산업단지 조성으로 169조원 생산, 32만명 고용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24%) |

정책대학원의 역사성과 대외협력의 증대를 통해 하나되는 고대인으로서 더욱 발돋움하도록 노력할 것

정책포럼과 특수대학원 등 밀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응집력있는 교우회로 나아갈 것



송인석
(제25, 26, 27대 교우회 신임회장)

△먼저 제25대와 제26대에 이어 제27대 교우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개와 당선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제27대 교우회장의 막중한 자리를 제25대, 제26대에 이어 재연임 하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교우회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습지만 정책대학원교우회를 좀더 발전시키라는 교우님들의 의미있는 성원과 지지로 알고, 제27대 총교우회장의 임기동안 교우님들이 더욱 참여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

는 교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우회장이란 직책을 3선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하는 교우회! 응비하는 교우회!"라는 슬로건으로 교우님들이 참여하고 즐거운 소통과 인적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업실행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동안에 제1기부터 제55기까지 3300여 교우님들을 망라한 '정책대학원교우회 인명록' 편찬, 여성교우들의 모임인 '정대원여우회' 발족으로 많은 여성교우들께서 교우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제3회 정책포럼을 2018년 12월 광화문 스페이스리온에서 '미국 대중국의 전략변화, 한반도 교통물류의 발전적방향'의 주제로 개최하여, 1998년 제1회, 2000년 제2회에 이어 18년만에 제3회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전통성을 되살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구체적인 교우회 활동을 교우님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27대 교우회장으로서 임기 동안의 슬로건을 포함하여 새롭게 구상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정책포럼의 역사성을 계속 이어가고 교우회의 큰 행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에 대한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금년 12월 개최할 것이며,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큰 행사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대학원교우회의 대외협력의 증대입니다. 특히 정경대학교우회와의 밀접한 교류와 특수전문대학원과의 교류도 지속적 확대를 통해 정책대학원교우회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정경대학 건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대학원교우님들의 모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대인으로서의 하나된 마음과 응집력으로 많은 교우님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항상 고려대 가족으로서 정책대학원 교우로서 자긍심으로 가지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교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하시어 교우님들 간 교류와 즐거운 소통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회 활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력

현) 정책대학원 제27대 총교우회장(물류학 박사)
(주) 영진지엘에스 대표이사
몽골리아 교통대학교 명예교수
UNESCAP(UNO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인적자원

(주)에이치케이조선

유람선, 어선등을 중심으로 한국 대표 주력 선형 개발을 통해 기본/생산설계, 브랜드화 및 표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www.hankukship.com

HKS (주)에이치케이조선
HANKUK SHIPBUILDING CO., LTD

|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236번지 TEL 055)835-0541 FAX 055)835-2143
| 대표 박 흥 갑 016-665-6791 (81학번, 사회학과)

총고정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우 간 네트워크 구축과 결속력을 다지도록 노력

비활성 기수와 소모임 활성화, 직군별 멘토링 등을 통하여 강한 결속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



이병천
(제28대 총고정회 신입회장)

△정책대학원 제28대 총고정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책대학원 제26대 총고정회 신입회장 이병천입니다. 정책대학원 총고정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를 해주신 원우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총고정회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으신 일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간위치추적기술 개발업체인 ELK에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간위치추적기술이란 현실 공간에서 사용자의 실제동작이 가상 공간에 그대로 동기화되어 가상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현실감있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앞으로 현실감있는 교육프로그램에도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교우회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책대학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2019년 3월 12일(화) 18시 30분 프리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8대 총고정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는 신입회장으로서 총고정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3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첫째, 제1기부터 현재 제63기에 이르는 전체 각 기별 교우회중 1/3 이상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비활성화된 각 기수를 활성화시켜서 총고정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학생은 물론 교우 간 소모임 활성화, 직군별 멘토링 등을 통하여 강한 결속력을 다지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고위정책과정에 있는 소모임인 산악동호회, 골프동호회 등 각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교우 상호 간 친목활동 및 경조사 등 상부상조를 위한 행사에 적극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습니다.

셋째,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인에 걸맞게 대

한민국 사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리더십의 소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미나 행사를 개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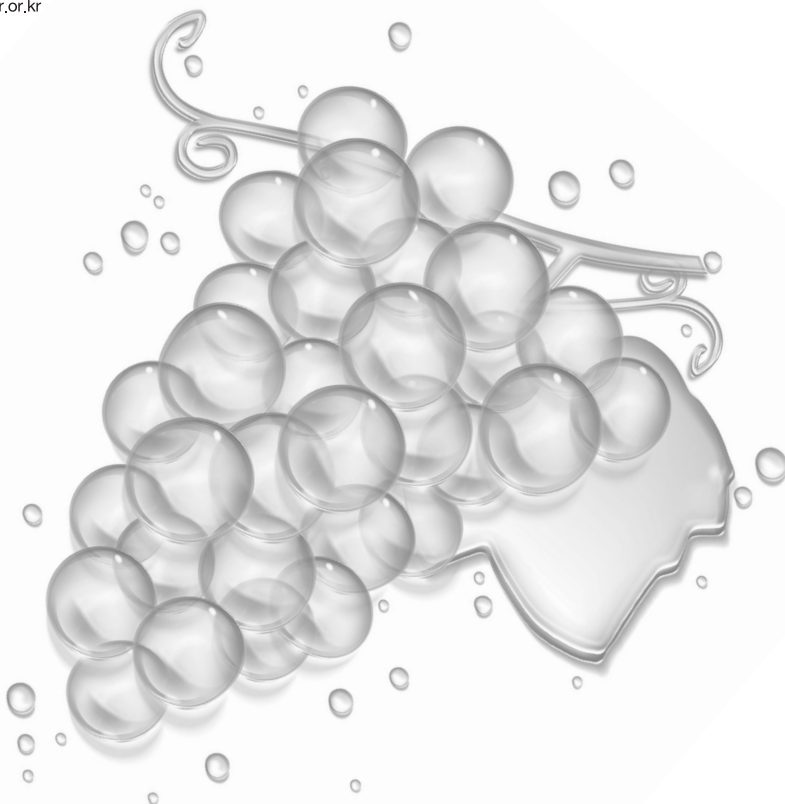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총고정회는 더욱 발전적인 총고정회를 위해 심도 깊은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취임 이후 이병천 총고정회장은 7명으로 구성된 선임부회장단회의, 김용인(제24기 행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십명의 각분과별 위원장회의, 김동민(제27기)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의원단 회의, 각기 회장단회의, 총고정회 부회장단회의, 사무차장을 비롯한 각기 사무국장회의 등을 매월 1회이상 진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취임후 곧바로 4월에는 위의 각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에는 대학원장 상견례 시간을 가지면서 총고정회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재학중인 제64기 원우를 방문하여 수업 참관 후 뒷풀이에도 참여하여 식사비를 후원하면서 총고정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결속력있는 최고위정책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입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지해주신 모든 교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은 최고위정책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water.or.kr>



신선하고 맛있는 물!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한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물 전문기업 K-water!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을 만듭니다

K water

원우들 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발전하여 서로가 격려하여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나아가길

수료 이후에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원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재영
(제64기 최고위과정 신입회장)

△정책대학원 제64기 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제64기 최고위 정책과정에는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원우분들이 많음에도 저를 제64기 회장으로 흔쾌히 선출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만큼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제64기 원우님들의 화합과 단결면에서 잘 이끌어 이 모임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우님들을 잘 모시고 제64기 임원진들과 잘 상의해서 발전적인 원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으신 일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주식회사 커브스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커브스는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여성전용 휘트니스 프랜차이즈이며, 커브스코리아는 2006년 커브스의 한국 진출 후 현재 전국 340여 개 지점, 7만여명의여성 회원들이 등록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휘트니스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중년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브스의 여성전용 30분 순환운동은 하루 30분으로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스트레칭을 모두 끝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재미있고, 빠르고, 안전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바쁜 현대 여성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40~50대 이상 중년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교 정책대학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제 지인 중에 KBS에 근무하는 후배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입학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이 최상위에 선정되었음 알게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고 귀한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제64기에 입학하신 원우님들께 입학 축하의 마음의 전합니다.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회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원우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우회가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최고위정책과정 수업이 모두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원우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원우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고, 원우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부담없이 즐겁고 재미있게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기수에서도 그렇겠지만 고려대학교 최고위정책과정의 원우들은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이렇게 학교에서의 인연을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듯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의 원우회가 인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바쁠 일정 속에서 시간이 없더라도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제64기 원우회는 꼭 참석하시어 서로의 친목도모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큰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BANYAN TREE
CLUB & SPA

문의전화 02-2256-6677



정책대학원 32주년을 축하하는 정책인의 밤

정책대학원을 빛낸 공로로서 '자랑스러운 정책인 상'을 수여하는 시간 가져

지난 12월 21일(금) 저녁 7시, 본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제57대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정책대학원 교우회가 후원한 '정책인의 밤'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본교 정책대학원이 32주년이 되는 해로, 본교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정책인의 밤' 행사에는 제57대 이동수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선배 원우들과 석사과정 제61기 원우, 정책대학원 교수님들이 모여 한자리에 모여 어우러졌다.

이날 행사는 1부 행사 △정책인의 밤 축하영상 △내빈소개 △총학생회장 인사말 △총학생회장단 축하 △정책대학원장 격려사 △교우회장 축하 △총학생회장단협의회 축하 △제57대 정책대학원 활동영상 △자랑스러운 정책인 상 시상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축하공연(슈퍼스타K4 TOP10 볼륨) △만찬 / 2부 행사 △레크레이션 △행운권 추첨 △각 기수 별 송년의 밤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원 정책대학원장은 "정책대학원 원우 여러분들이 이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오늘 정책대학원의 한해를 마감하는 정책인의 밤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열과 성을 다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신 이동수 제57대 총학생회장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도 정책대학원은 잘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석사과정의 커리큘럼과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개선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축하의 인사말을 건넰었다.

본 행사에서는 감사패, 공로패, 장학증서와 장학금, 자랑스러운 정책인 상을 수여하는 뜻깊은 코너가 진행되었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감사패에 이재원 정책대학원 원장, 김동현 경제정책학과 주임교수, 오승곤 경제학과 교수 △공로패에 송인석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남상순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장단 협의회 회장 △자랑스러운 정책인상에 제58기 심윤주 원우(국토경제학과), 제58기 김주현 원우(도시및지방행정학과), 제58기 이재명 원우(글로벌정책학과), 제59기 김미숙 원우(도시및지방행정학과), 제59기 박정모 원우(국제관계학과), 제59기 장은영 원우(국제관계학과),

제60기 김용중 원우(도시및지방행정학과), 제60기 권영균 원우(국토경제학과), 제60기 박태량 원우(국제관계학과), 제61기 이춘식 원우(조세재정학과), 제61기 남명안 원우(글로벌정책학과), 제61기 남기환 원우(국토경제학과), 제61기 박태순 원우(국토경제학과) △장학금 및 장학증서에 제62기 유은미(국토경제학과), 제62기 정재호(도시및지방행정학과), 이재호(경제정책학과), 제62기 이창기(조세재정학과)

2부 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 및 행운권 추첨이 있었으며 이후 행사 막바지에는 이수리 제58대 총학생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수리 총학생회장은 "저희 제58대 총학생회장단도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 원우님들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학생회는 원우님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앞으로도 원우님들의 복지, 학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고 인사말을 건넰었다.

www.lh.or.kr



2,461개의 자연



6억 1,800만㎡의 숲터



227만 채의 보금자리



5,516km의 도로



15,932km의 생활수도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매일 편리하게 오가는 출근길
5천만 국민이 편리하게 쓰는 상하수도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녹지공원
가족의 더 큰 사랑과 행복이 자라는 내 집
세상 어느 곳보다 살기 편한 대한민국
LH가 만드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자랍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공기업
대한민국 서포터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하는 일은? | 공공택지의 80% 공급 (여의도 면적의 213배) | 총 448만호의 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의 80%) | 장기임대주택의 72% 건설 (시세 30-60%의 저렴한 임대료) | 산업단지 조성으로 169조원 생산, 32만명 고용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24%) |

2019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학사일정

2019년 2월	1(월) ~ 28(화)	2019학년도 1학기 휴복학 산정기간
	11(월) ~ 12(화)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원서 접수
	15(월)	2019학년도 전기 입학식(해당)
	21(목) ~ 27(수)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해당)
	28(월)	학위수여식
3월	10(화) ~ 21(목)	2019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5(화)	2019학년도 1학기 첫 수업
	6(화) ~ 7(목)	산업생 선수과목면제신청서 제출
	6(화) ~ 7(목)	논문토목 신청서 제출(신.구학번 4학기생 이상 희망자) 학점토목 신청서 제출(구학번 4학기생 이상 희망자) 지도교수 신청서 제출(논문토목 신청자)
	8(화) ~ 8(월)	수강신청 정정 기간
4월	12(화) ~ 14(목)	2019-1 통합시험, 졸업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12(화)	지도교수면접 신청 마감(방해 학기 신청자 제외)
	3(수)	통합시험 시행 (오후 7시)
	8(월) ~ 23(수)	2019-후기 석사 특별전월 입학시험 원서 접수
	17(수)	통합시험, 졸업시험 합격자 발표
5월	18(화) ~ 18(목)	석사학위 청구논문송언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22(월) ~ 28(월)	통간고사
	1(수) ~ 31(목)	논문 심사(해당)
	8(수)	2019-후기 석사 특별전월 입학시험 시행(오후 7시)
	7(월)	2019-후기 석사 특별전월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6월	7(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17(월) ~ 21(월)	기말고사
	24(월)	여름방학사작
	4(목) ~ 5(월)	합집 논문(최종 완성본) 제출마감
	1(목) ~ 28(월)	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산정기간
8월	5(월) ~ 8(화)	2019학년도 2학기 재입학 원서 접수
	18(월)	2019학년도 후기 입학식(해당)
	23(월) ~ 30(월)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해당)
	20(화) ~ 22(목)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23(월)	학위수여식

제64기 최고위정책과정 학사일정

3, 14(목)	[입학식]
3, 21(목)	최종연구계획서 제출(연구 주제를 어떻게 다루할 것인가 / 조영배 (고려대 철학과 교수) [최철의 시간]
3, 28(목)	대안토목 - 30대 특별회비 비전 / 장도원 (해당대 특별 전반기 특별대표)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찾기 / 이기룡 (성균관대 명예교수)
4, 4(목)	철오의 정치학 / 장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4, 11(목)	대안토목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 허예은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산업생 원성희]
4, 18(목)	변화하는 국제안보정세 / 어신복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 25(목)	[고실 밖 수업] '고려대 박물관' / 최광식 (제44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5, 2(목)	2019 한국경제: 머릿글자를 중심으로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5, 10-11(월~화)	[특강세미나]
5, 18(목)	현장지능 시대와 가치와 기회 / 김대식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5, 23(목)	북한 경제 협력과 4차 산업혁명 / 김택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5, 30(목)	미디어와 변화의 도전 /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6, 13(목)	한국경제의 도전과 기회 / 박원환 (해당대 기획재정부 장관) 공전 이후의 전세를 위협하는 실업과 부채의 함정 / 김철은 (고려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
6, 20(목)	한국문화와 기업문화 / 김재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
7월 중	해외세미나, 수료식

제58대 총학생회 행사일정

연월	일시	장소	내용	비고
2019년 2월	15(금)~16(토) 오후 3시	힐튼호텔	제63기 신입생 환영회 제58대 총학생회 출범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25(월) 오후 3시	우당교양관	제58기 졸업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3월	12(화)~14(목)	총학생회실 정경관 514호	개강 디과회	
	13(수) 오후 5시	최고위강의실 618호	총학생회 임원단 선임공 수여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14(목)~28(목)		각 과별, 기수별 모임 진행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30(토)		특수대학원연합회 불경대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4월	3(수)		종합시험, 졸업시험 시행	
	4(목) ~ 8(월)	필리핀	해외세미나(필리핀)	위원장님 주임교수님
	20(토)		골프대회	위원장님 주임교수님
	22(월) ~ 26(금)		중간고사	
5월	25(토)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행사 (고연대 합동행사)	
	30(목) ~ 5(수)	총학생회실	제59대 총학생회장 선거	
6월	1(토)		등반대회	위원장님 주임교수님
	17(월) ~ 21(금)		기말고사	

※ 본 일정은 총학생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입생환영회 결산보고

제 58대 출범식 및 신입생 환영회 결산 보고

제58대 출범식 및 신입생 환영회 행사가 원우님들의 후원과 협조속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사 결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연번	항목	지급처	금액	내용
1	그랜드 힐튼 호텔	힐튼호텔	12,347,040	호텔 단찬 및 숙박비용
2	조식	완산골명가	140,000	여침식사(20명)
3	초대장 및 팸플렛	방송기획	611,400	모바일초대장, 명찰, 명찰케이스, 팸플렛
4	전 회장님 기념품	김일봉(금거래소)	1,840,000	57대 이동수 회장님 기념품 제작(금10돈)
5	초대공연	공연팀	2,700,000	고대음원단, 오케스트라, 불륜, 마술사
6	음향팀	이벤트파크	500,000	음향팀
7	상패	다인	280,000	당선포, 공로패 제작
8	현수막, 기념품	칠칠기프트	1,878,500	신입기념품(머그컵, 단채티), 현수막(신입생, 단상백면)
9	사진	김정호 사진	300,000	사진촬영
10	꽃다발	허브연플라워	220,000	꽃다발 및 코사지
11	주류 및 주전부리	골든마트	526,600	주류 및 생수, 다과등
12	와인	현대백화점	200,000	와인 20병
13	케익	불랑제리	50,000	케익주문 및 집행부 간식
14	고대봉투,배지	유니스터	212,000	고대봉투 80개, 고대배지 80개
15	경품	하이마트	386,660	위닉스공기청정기1개, 에어프라이기3개, 커피머신1개
16	기타		207,514	네송료(고대->호텔), 잉크, 세면도구
합계			22,399,714	

재정위원장 이준식(인)

한국정치의 모순과 정책의제의 왜곡



우리가 스스로를 문화민족이라 생각한 것과는 달리 외국의 시선에서 과거의 조선은 "모든 것이 딱하고 천하고 초라한 나라"로 보였다. 이는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여사의 의견이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도 조선은 수많은 굴욕의 역사를 안고 있다.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올라가다 좌초할 때, 물과 음식과 의복을 내주는 국제적인 관례를 모른 채 조선은 평양감사의 지휘 하에 배에 불을 질러 모든 선원들과 젊은 신부들을 죽였다. 그 결과 신미양요와 강화도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 때 3개월의 대치 중 전투로 한 것은 3일이며, 사실상 그 중 승패를 가른 전투는 한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불과 한 시간동안 미국군 2명이 사망할 동안 조선군은 250명이 그들의 장총에 머리를 관통당해 사망했다. 방탄복이랍시고 6월에 숨을 8-9겹으로 채워넣은 옷으로 무장을 한 채 조약한 화약총으로 최신식의 대포와 장총으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 중 50명은 자결을 했는데, 이는 조선 정부가 그들에게 "살아 돌아오는 자는 집에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 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그 기록을 차마 읽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모욕을 당했던 나라였다.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절규한 정약용을 비롯한 수많은 선각자들이 조선이 망해가는 시점에 이래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조정은 아무런 변화를 피하지 않다가 망해버렸다. 그 때 조선의 정치제도는 세도정치였다.

사회의 변화가 심하게 진행될 때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제시하여 국가를 바꾸는 것이 권력의 역할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당시의 조정은 그러지 못했다. 권력은 발전과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세도 정치를 주도하던 가문들은 그들의 부귀를 위해 권력 그 자체만을 탐닉했다.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면 조선조 말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 중이다. 기술의 변화만 해도 하루하루가 다르다. 각 기술의 생명주기는 날로 짧아지고 있으며 계속 더 짧은 주기로 신기술이 기존 기술의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공장들이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어 사람이 없는, 즉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기술들이 일자리를 집어삼키는 이런 현상은 비단 육체노동 뿐 아니라 AP통신의 스포츠 기사 AI를 비롯해 지적인 노동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술은 시민사회의 권력구조도 바꾸고 있는데, 카카오톡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플래시몹, 시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에 잘 대처하는 것, 곧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없이 하는 많은 결정들의 질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결정을 현명하게 내려야만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한국 정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국가주도주

의다. 정부나 국가가 개입력이 너무 폭넓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사회는 물론 경제에 까지 영향을 끼침. 그 정점인 박정희 정권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타국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다. 인가, 허가, 승인, 감독 등 수 많은 절차들이 기업들을 옥죄고 있으며 배임죄도 한국만큼 폭넓게 적용되는 나라가 없다.

두 번째로 국가의 역량이 너무도 낮다. 현재 행정부가 주도하는 법안이 하나 발안되어 통과되고 시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5개월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현재 계류된 법안이 만 건이 넘는 실정이다. 이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관료사회는 온갖 감사로 과거에만 얽매인 채 국민들에게 잡힐 트집들이 가득한 지뢰밭 한가운데 꼼짝없이 멈춰있다. 시스템 속에서 국가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세 번째로 각 당들이 자신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의제를 왜곡한다. 정작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무기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으로 내버려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의 운명은 정부 말기에 이르면 지지율이 바닥을 가는 가시밭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정치구조 속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대한 방안은 바로 보충성의 원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교황 레오13세가 쓴 논문인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사유재산제도를 신의 섭리로 여기고 국가의 역할을 시장과 공동체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먼저 행동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보충하라는 뜻이다. 요즘에 이를 적용한다면 지방정부가 먼저 정책을 펼친 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되겠다. 이것은 새로운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히 해왔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정치



흔히들 하는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나 되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 함의되어있는 것이다. 본인도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정치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 본 후 나온 결론은 바로 우리 정치는 사람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정치라고 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을 이야기한다. 사실 이 국회의원을 한 사람씩 뜯어보면 각각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소위 스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선발되는 4년마다 보통 50% 정도는 물갈이가 된다. 그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 마음에 들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매년 제법 성공한 대단한 사람들로 4년마다 물갈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치의 질은 나빠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거칠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더 이상 소용없다.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현존하는 사회 유형 중 가장 선호되는 것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 타입이다. 반대로 불평등이나 양극화지수가 높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유형을 놓고 판단할 때 이 둘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의 수준이 아니다.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들여다보면 정치인에게 국민이 청중과 같은 자세로 대하는 나라는 없다. 대개 그런 좋은 사회는 정치가들을 험하게 다루고 요구를 많이 한다. 동시에 한 편으로는 투자도 많이 한다.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사회의 거리가 너무 멀다. 정치인과 국민이 밀착해야 정치의 질이 좋아진다. 정치인이 사무실에서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국회의원이 나오면 반가운 것이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정당과 스펙을 보고, 얼굴을 알면 표를 준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 집중하는 것보다 방송출연을 하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 현재 선거법에서 유권자는 4년 임기 중 오직 13일 동안만 그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 약법이며 적폐다. 유권자란 말의 뜻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을 13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치인이 당선된 그 순간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유권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속된 말로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치인이 이기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 시스템은 바로 비례대표제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수가 1대1 비율인 연동형이고 우리나라는 병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100% 비례대표를 적용한다. 지역구 제도의 장점은 후보를 보고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명부를 보기는 하지만 정당을 보고 찍는 것이 맞다. 이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는 출마한 후

보가 할 수 있는 공약이다. 비례대표에서는 후보가 '지역구에 건물을 짓겠다' 따위의 공약을 할 수 없다. 반대로 지역구에서는 후보가 아동수당 등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이야기하면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웃음거리가 된다. 지역구 제도 하에서는 내셔널 어젠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복지는 내셔널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지역구 단위로 선거를 쪼개서는 복지가 정치의 메인 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에서 복지위주의 고민이 나온다. 국가의 다수는 서민이고, 약자를 위한 정치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더라도 재선을 생각한다면 당선된 직후부터 지역구를 찾아나서야 한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어봤자 자신의 담당 지역구가 생기는 순간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의미가 없다. 선관위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제안했었는데, 대다수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니 그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놓는 결정을 막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곧 정치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에 도달하는데 12년이라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부터 이 나라가 국민소득 4만 불에 도달하는 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치에 달려있다. 그래서 절박하게 정치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다. 약자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해주어야 한다. 거창한 이유도 필요없이 약자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나 간단한 산수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이 본질을 가로막는 것이 현재의 지역구 선거제도다. 현재 제도는 3등이나 4등의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되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과반 의석을 한 정당이 가질 수 없고 두세 개의 정당이 힘을 합쳐 연정을 해야 하는, 유권자를 배신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된다.

화쟁의 정치학: 배타적 주장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좋은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 행복하는 것이 좋은 삶일까? 행복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좋은 사회적 조건하에서 좋은 삶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Good life와 good society는 꼭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Good society에서 good life를 이루기가 보다 더 수월할 것이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에 1896년부터 1901년까지 4년 정도 방문한 사람이다. 그녀는 영국왕실의 먼 친척이며 일본, 중국, 하와이, 캐나다 등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학문적인 책을 남겼다. 이분이 쓴 『한국과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에서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대한 그녀의 평가가 나타난다. 버드비숍은 한국의 첫인상에 대해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이다. 말귀를 알아듣는 총명함을 타고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지만 한국에 더 머물면서 한국인들의 많은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의심, 교활함, 진실성 없음 등에 대해 실망하였다. 그러나 이윽고 그녀가 한국을 나와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고는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재평가를 한다. "나는 여행자들이 내가 이곳의 한국가정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온화한 친절과 더 깨끗하고 안락한 편의시설을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곳의 한국남자들에게는 고국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풀죽은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본 한국인의 불성실함. 거만한 모습을 보고 한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으로 보았으나 만주에서의 한국인이 고국인들과 달리 성실한 부농이 된 모습을 본 것이다. 그녀는 그 당시의 한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만약 한국인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기록한다. 이후 그녀는 한국으로 되돌아 갔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나쁜 것은 행정관의 관아라고 평하였으며, 선비나 문필가, 관리들, 전령들을 '한국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라고 비평했다. 이 글을 보고 본인은 구한말 한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썩은 한국의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비록 그때의 구한말 한국은 비참했지만 해방이후 지금의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정부를 만난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이분의 말씀이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최근의 한국사회는 갈등과 혐오의 사회이다. 적폐, 맘충 등과 같은 적대적 용어를 생각하자. 또한 세월호 사태를 생각하자. 세월호 사태를 생각하면 정치적 갈등이 떠오르는데, 과연 무엇이 해결되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떠올릴 수 있는가? 당시 목포 항구가 전체적으로 적자 상황이었어서 초과적자가 관습적으로 허용되었고 그것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일본역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 메뉴얼 등을 만들었다. 심지어 세월호 사태를 본 이후 외국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재난구조 비상 메뉴얼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니다'라는 이러한 정쟁만 논의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밀양에서는 송전탑, 성주에서는 사드, 용산에 가면 용산참사가 생각난다. 그러나 이러한 생채기만 있고 그러한 사례를 통해 무엇이 해결되었고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나라를 잃은 아픔역시 부끄러운 역사이다. 또



한 해방이후 이념갈등 하에 많은 이가 죽은 것 역시 부끄러운 역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속에서 무엇이 달라 졌는가.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하자. 우리는 둘 중의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적대시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도 맘충, 개저씨, 급식충 등 상대를 비하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나는 화쟁의 정치학을 주장한다. 번영하는 문화는 생기 넘치는 사회의 핵심적 요소이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책을 읽었다는 교양적 허영이 아니라 책이나 작품 속에서 인물들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국제안보정세

1. 흔들리는 국가주권 - 국가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웨스트팔리아조약을 통해 국가주권이 생겨났다. 그러나 UN이나 NATO 등과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화되기도 하는 통합화 현상이 있고, Brexit트럼프의 등장과 같이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는 주권국가의 강화 현상, 한편으로는 국가내 정치인종분쟁 등이 일어나고 난민이 생기고 테러가 일어나는 등의 파편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적 공동체 건설이라는 세계화 현상, 문화적 전통적 구분의 중요성으로 인한 기존 국민국가(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독립전쟁)의 파편화 현상, 주권국가의 강화현상이라는 상반된 모습들이 공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주권의 변화는 안보의 개념변화와 같이 보아야 한다. 세상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더 이상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만 안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만 안보를 보는 전통적 안보이외에도 글로벌 이슈나 초국가적 이슈와 같이 여러나라가 동시에 관심을 갖는 안보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국가차원의 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생존과 복지 및 존엄성에 위협이 되는 제반 요소를 제거하는 맥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인신매매, 강제이주, 환경문제, 전염병, 사이버해킹 등 안보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국가가 아닌 인권이 보다 강조되면서 인간안보 개념이 중시되어졌다. 예컨대 민족갈등이나 내전 및 인도적 위기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국 내 군사적, 영토적 안전이 확보되어어도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표인 경제, 환경, 사회적 영역의 불안정성이 크고 국가안전은 도모한다는 구실 속에 국민의 안전이 정권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은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주권을 존중하는 인간안보 관점 역시 조망되고 있다.

2. 북핵문제에 대한 해석 - 그 이전에 세계의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이를 나열할 때 북한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반기문 총장이 UN 사무총장이 되어서 국제이슈목록을 읽는데 첫째페이지에 북핵문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비록 2페이지에 북핵이슈가 있었지만 그것도 중간 즈음에 있었다고 한다. 북핵문제로 넘어가서 김정일은 왜 대화에 나

왔는지를 보자, 북한이 왜 나왔는지는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핵경제병진이라는 기조에서 알 수 있듯 북핵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국내경제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주관적 시각을 해석하자면 여러가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두가지를 보면, 첫째는 등소평과 같이 향후 통치 50년 정권안보를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서 정상국가화 및 비핵화를 통해 얻는 투자지원으로 경제성장을 함으로서 내부 통치정당성의 확보이다.

둘째는 매력공세라고 할 수 있다. 재재완화나 해제를 목적으로 비핵화를 둘러싼 주요 유관국들의 정책차이를 벌려놓음으로써 동맹국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또 하나의 deceptive diplomacy라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의도를 전자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단일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미사일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역시도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낙관적 접근만 해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북핵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재재를 완화하자고 UN에서 공공연히 주장을 하였다. UN은 북핵에 대한 기본적 원칙 구조가 비가역적인 핵폐기조치 없이는 재재완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원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설득은 낙관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얻지 못할 뿐더러 당사자국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본다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있다. 또한 북한이 영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생각하여야 한다. 북한은 2018년 대화 기조로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하고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위한 계산적 행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과의 외교접촉에서는 자신들이 다 응해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13개월동안 소련과 중국을 각각 3번씩 방문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동맹관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기존의 동맹관계의 공조는 약해지고 있으며 한미일관계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때문에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일본을 이용하여야 하는 이 시기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이 해야 할 외교안보전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강대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기 쉬운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억지력과 한중협력력을 통한 대북 설득력을 제고하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북핵협상의 향방은 김정은의 장기집권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의도, 특히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실제적인 핵개발 능력과 경제발전 역량,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의 지속성 및 외교적, 군사적 압박 수단 간의 균형 등을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비핵화를 도출하기 위해 남북, 북중, 북미 정상회담, 북중러 3자회담 등 자신들을 중심에 두고 전방위적 외교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바, 특히 한국과 미국의 대일 소통이 원활해져야 하고 기존의 동맹관계를 버리지 않고 신뢰관계를 유지해야한다

대한민국 건국 100년에 보내는 나의 소원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정부와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제 치하 36년간 치열했던 항일독립투쟁의 역

사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 현대사는 식민통치, 항일독립전쟁, 광복, 분단, 6.25, 산업화, 민주화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성취는 진행중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선진강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통한의 역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열었던 항일독립투쟁사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매우 활발하며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또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좌우연합체로서 출

발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성은 사회통합과 갈등극복, 분단극복을 위해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렬했던 독립운동을 재인식함으로써 그간 부족했던 우리들의 역사 인식을 성찰해보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란다.

백범 김구 선생의 편지

- 대한민국 건국 100년에 보내는 나의 소원 -

다시 3.8선을 넘는 마음으로...

3.1운동의 함성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매우 감개무량하며 7천만 동포 모두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겨레는 암흑같은 일제치하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나 치열하게 싸웠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광복의 기쁨에 들떠있던 우리는 다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과 광복의 시대정신이었던 반민족 친일파의

청산과 통일단일정부의 수립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다양한 노선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완성이었다고 해서, 다스기대에 못미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결코 본질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형식적인 이론들에 의해서만 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조를 견디며 승리한 항일독립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처럼 정부의 형태를 갖추며 치열하게 항쟁한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축하라도 하듯이, 작년부터 한반도에 평화의 새 봄이 시작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길고 힘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한 진정한 광복, 통일조국의 꿈! 다시 7천만 온 겨레가 다 함께 손잡고 시작합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지난 1948년 4월 새봄에 3.8선을 넘어, 꺼져가는 통일조국 수립의 불꽃을 살리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독립은 통일된 우리 겨레가 부강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불꽃이 다시 7천만 온 겨레의 마음속에

정민규 | 석사63기 (글로벌정치학과)

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루지 못했던, 한없이 부족한 이 사람의 소원을 한번만 더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所願)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大韓獨立)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 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自主獨立)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同胞)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 밖에 없다. 내 과거의 질실 평생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達)하려고 살 것이다.....

'틀'을 '탈'하자: WHAT, HOW, WHY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거나 직업으로 충분히 접하고 있는 훌륭한 대다수의 선배님들과 동기들과는 달리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예대 연극과, 가천대 피아노과, 동덕여대 방송

연예과 석사, 상명대 일반대학원 연극영화과 박사를 졸업하고, 고대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0년차 성우(KBS 공채 28기)에다가 동서울대 연기예술실용음악과 연기전공 전임교수이기도 합니다. 배우, 의전MC, 성우도 간혹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대 정책대학원 입학의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술계, 교육계의 좋은 변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구조와 기본기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체감해서, 용기 내어 고대 정책대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오랫동안 다녔고 평생 배울 예정인

저는, 13년 동안 전국에 있는 다양한 대학 강의를 하면서 (전임은 4년 차) 예술계와 교육계에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의 교육철학이기도 합니다.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1. '틀'을 '탈'하자. -선입견과 첫인상, 일반론으로 학생이나 배우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잘못된 상처주기가 생각됩니다.

2. '기회'와 '평가'는 '과정'하계,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하자.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하여 공평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단시간에 이를 수 없는 학업적 성과를 인정하고, '과정'을 통해 느끼고 배워가는 것에 대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대학원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절대평가라고 들었습니다.

3. '칭찬'에는 반드시 이유를 이야기 해주고, '개선점'은 '지적'(WHAT)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법(HOW)을 맞춤형식으로 가르쳐 준다. -무조건적인 칭찬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트릴 수 있고 진정성이 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제

자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개선점'의 맞춤형교육은 개성과 개인성을 반영한 맞춤형교육으로써 예술교육계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4. '성공'의 기준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어야 한다. 즉, '남'의 기준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소신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성공하고 나서 찾아온다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스타'가 되는 것이 꼭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현모양처와 훌륭한 아빠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교의 대상은 '타자'가 아니라 '과거의 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수업을 하여야 한다. '왜'(WHY)라고 과고를 줄 알아야 하며, 반대 의견에 흥분하지 않은 채 충분히 듣고, 논거와 논지를 통해 매너 있는 표현으로 피력해야 한다. 건강한 토론에 익숙해야 한다. '주입식'과 정확히 떨어지는 답에 익숙한 교육환경, 체벌과 비교식 수업방식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교육풍토는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관계를 더욱 권위적인 상하체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된다면 학습자는 끊임없이 뒷좌석 벽 쪽에 기대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견디지 못 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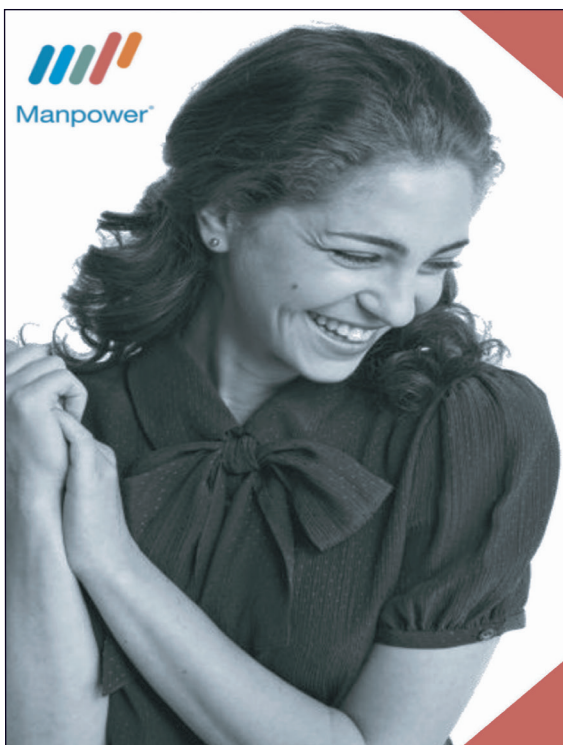
김혜주 | 석사63기 (도시및지방행정학과)

다.

6. 강의는 교육자의 지식자랑의 장이 아닌, 철저히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수업에 해야 한다. 맞춤형교육(눈높이교육), 자기주도학습이 그것입니다. 간혹 예술교육자 중 극소수가 스타를 꿈꿨지만 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한풀이나 수업자체를 자신의 작품발표회라 착각하고, 마치 모노드라마에 배우로서 무대에 선다고 생각하며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것은 안타까운 수업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한 '예술계'에 기반을 둔 '교육계'의 변화를 향한 바람은 위와 같습니다. 5년 여 전부터 예술교육사업계에서는 수년 동안 예술교육사업계에서는 국가 보조 사업선정을 할 때,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지속해서 화두에 올렸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유지하고 마무리까지 잘 하는 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틀'을 '탈'하는 깨어있으며 창의적이고 공정한 자세는 교육자, 혹은 학교에서 꼭 가져야 할 필수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대 정책대학원생이자 다른 학교에서는 교육자이니, 5가지 모두 실천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교육과정들과 학문접근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3단어! WHAT! HOW! WHY!





HUMAN AGE!

맨파워는 인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헤드헌팅
채용대행
HR 컨설팅

아웃소싱
IT BPO
아웃플레이스먼트

인재파견
전시·컨벤션 기획
탈런트매니지먼트

혁신적인 인재 솔루션을 위한 여러분의 파트너

Manpower Korea

www.manpower.co.kr

Since 1948 in USA

대표이사 문용기 (무역 76)

평화통일의 원칙과 남북총선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평화통일론은 1972년부터 헌법 전문에 반영되고, 1987년 헌법에서는 4조에 평화통일정책 개념이 명기되었다. 이후 1987년 헌법에 따라 탄생한 정부들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일계획을 제시해 왔다. 1987년 헌법 하에 출범한 역대 정부들의 공식적 통일 전략들은 남북한 총선거와 평화적 통일을 공통적이고 핵심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평화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평화통일의 실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합의통일의 원칙과 내용은 남북 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에도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흡수통일을 말하는 입장에서 합의통일은 북한의 연방제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흡

수통일의 경우에도 남북 사이에 통일국가의 헌법적 원칙에 대한 합의와 이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 과정이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남북한 모두 평화통일을 말하면서 그 세부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 합의통일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것은 평화통일의 원칙보다 합의통일의 원칙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골격은 남북한 사이에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과도기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을 통해 남북총선거를 치러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완성된 통일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통일방안은 장기적 체제우위를 통한 남한체제로의 자연적 병합을 전제한 기능주의적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정치적 방안은 실제로 없다. 그러나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논의와 준비에 있어서 남북한이 함께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와 내용의 측면이 더욱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제도통일도 구체적인 과정이나 명분, 형식에 있어서 남북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통일 내에서도 합의통일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정치과정이다.

그럴 경우 현재의 남과 북의 통일방안에서 통일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공통으로 유추해 낼 수 있는 과정은 남북한 자유총선거다. 무력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통일을 추구하든 남북한이 총선거라는 다수결의 제도적 합의를 평화통일과정에서 결국은 거쳐야 할 공통의 제도적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 남북총선은 당연히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의 선거원칙이 적용되어지는데 이것이 현실정치에서 확인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민족자결, 국민주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남북이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통일의 절차와 방법이다. 남북한 자유총선은 대한민국의 일관된 통일방법인데 북한도 조건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는 남북총선을 통해 통일하자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남북총선을 통한 방법의 통일을 수용할지 여부는 핵문제를 중

심한 북한문제가 해결되고 실질적인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통일문제가 남북한 당사자 문제로 내인화될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시기에서 남북총선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북한문제가 어떤 형태이든 해결되고 이후 일정 정도로 남북교류가 진척되어 남북연합단계가 진전될 경우 통일의 한 방법으로 남북한 자유총선거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의 2단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부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만약 헌법이 개정될 경우 필요한 내용은 헌법에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남한의 민주화과정을 근간으로 마련된 이른바 '1987년 체제'를 담은 현행 헌법이 개정될 경우 남한 정당들 간에 통일국가의 성격에 관련해서 정치체제와 이념에 대한 최소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총선을 포함해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은 다른 언론사에 있지만 20여년전에 같은 회사에서 함께 기사를 시작한 친구를 10여년만에 만났다. 이런 저런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 화두가 최근 이슈인 북핵 문제로 옮겨갔다.

남한에서 소위 내로라하는 언론사 고위 간부인 그는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말로만 핵포기하겠다는 거짓말만 하고 한번도 핵포기 이행을 안했는데 왜 그렇게 김정은의 핵포기 발언을 믿는 지 이해 못하겠다며 일갈했다. 나는 핵협상은 미국이라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을 일방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그는 지난 25년간 북한의 핵포기 거짓말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기자는 객관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주자장천 핵포기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정말 '팩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다. 믿고 싶고 믿고 있는 것이 '팩트'로 둔갑하는 전형적 사례

다. 나와 친구의 대화가 문제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놓고 언론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갈등과 분열의 축소판인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70년 남북적대와 대결의 상황에서 이쯤 되면 필자를 중북 좌파가 아닌가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나는 70년전 이역만리를 찾아와 공산권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수한 피를 흘린 미국에 감사한다. 우리에게 시장경제 지원에 나서며 전쟁의 폐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선진국 문턱에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나라다.

동시에 나는 70년 남북분단과 전쟁,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오해, 불신을 떨쳐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교류를 통해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자유가 넘쳐나는 한반도 경제권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를 가로막는 북핵 문제의 본질과 서사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

왜 북한이 핵보유에 집착하는 걸까. 세계 경찰인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서다. 80년대말 구 소

련이 자체 붕괴하면서 자유-공산 냉전은 미국 일강 체제로 바뀌었다. 동유럽 등 모든 공산권 국가들이 미국과 수교하며 문을 열었지만 북한만이 유일한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남았다.

공산권 붕괴에 위기감이 덮친 북한은 90년대초 한반도내 주한 미군을 인정하며 자신과 수교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는 것이 당시 우리 군 관계자의 증언이다.

하지만 냉전에서 승리하며 세계를 제패한 미국은 독재 국가인 북한을 인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북미 관계는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었다. 인류의 공산주의 실험 실패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남한이 구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적극 중재에 나서 북미 수교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했더라면 북핵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세계 유일 경찰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놓인 북한 입장에서 체제보장을 위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94년 연변 핵위기가 발생한다.

이때부터 지루한 북미간 북핵협상이 시작된다. 북한에 경수로와 등유를 지원하는 대신 북한이 핵을 포

기한다는 94년의 제네바 합의가 나왔지만 존 볼튼 당시 국무부 차관이 당시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문제를 제기하며 수포로 돌아간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남한 중재하에 북미, 러시아, 중국, 남한,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통해 2005년 단계적, 동시적 체제보장- 북핵 폐기라는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이 성명 사인 다음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의 북한 위조지폐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에 나섰고 이후 북한도 단계적 북핵 포기 이행 조치의 한 단계였던 우라늄 시료 해외 반출을 거부하면서 또 성명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처럼 북핵 문제는 북미 간 서로간의 불신이 지난 수십년간 커져서 쌓여온 문제다. 하루 아침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맞다. 북한은 3대 권력 세습을 자행한, 유일신 수령을 따르는 신정(神政) 국가다. 인민의 삶은 피폐하다. 90년대 전후 공산권이 붕괴한 후에도 고립된 섬으로 남은 자폐증 북한의 자화상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 정상 국가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 핵을 넘어 미래를 봐야 한다.

이병관 | 최고위64기 (서울경제TV 보도국장)

대한민국 NO.1 웨딩컨설팅
BEST Wedding Net

특별한 날에는 베스트웨딩넷

예식장 예약부터 허니문까지 웨딩서비스

- 1 호텔 예식장 상담예약
- 2 드레스 헤어&메이크업 스튜디오 앨범촬영 및 본식진행
- 3 혼수 예단 예물 예복 스킨케어 허니문 등 혼수 전문
- 4 소규모웨딩 하우스웨딩등 테마웨딩 진행 전문
- 5 결혼기념일 리마인드 웨딩 전문

웨딩상담 02-542-2340

홈페이지방문을 환영합니다 www.bestwedding.net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9(청담역) 대표이사 정태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45기 사무국장)



업계최초 ISO 9001 웨딩서비스 인증업체



추천 도서



나와 타자들 –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이졸데 카림 저, 이승희 역, 민음사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이졸데 카림의 예리하고 지적인 정치철학 에세이 『나와 타자들』. 타자 혐오라는 현상의 배경인 다원화 과정을 추적하여, 타자와 변화를 축으로 오늘날 주체와 정치적 욕망에 대한 극히 날카로운 분석을 전개한다. 다원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부하고, 울타리를 치고, 장벽을 세우며 변화의 반대편에 선다. 외부적인 방어인 동시에 내면적인 방어 밖에서 바라볼 때 옛날의 완전한 정체성은 배타적이고 폐쇄된 것으로 바뀌고 만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변화 과정을 따라가면서 개인주의의 증위를 역사적으로 구분한다. 첫째, 19세기 국민국가가 형성될 때 기존의 관계망에서 벗어나 동등한 개인들이 처음 출현했다. 이것이 1세대 개인주의다. 둘째, 1960년대에 와서 정당과 같은 소속을 통한 운동이 각자의 정체성을 통한 개인의 운동으로 분화된다. 이것이 정체성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2세대 개인주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의 다원화 사회에서 대두한 3세대 개인주의다.

저자는 정체성의 혼란과 타자 혐오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관해 장벽을 쌓아 올려 변화를 애써 거부하는 것과 정반대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타자에 대한 적대를 온라인상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양산시키는 지금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오프라인의 공적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아무런 권위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의해서 움직이는 공간에서 개인이 스치며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보며 오늘날 감소된 주체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김영민 저, 어크로스

'추석이란 무엇인가'에서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고 말하며 신선한 시선을 우리에게 선사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민 교수의 첫 산문집이다. 에세이스트로서의 김영민이 독보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제도, 메시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존 신문 칼럼이나 한국 에세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리듬감과 유머, 해학이 깃든 단단하며 유연한 글에 있다. 엄격한 영역으로 여겨져 온 신문 칼럼에서 장난기나 유머, 혹은 공격성이나 신랄함을 일정 수준 이상 담는 건 금기처럼 여겨졌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자의든 타의든 어느 정도의 타협과 지루함, 비분강개형의 칼럼 일색이었다. 하지만 김영민 교수의 글은 그러한 칼럼과 다른 결에 있다. 그는 유머를 활용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되, 그제 '장난'을 넘어 품격 있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절묘한 리듬감을 글에 풀어 넣는다. 그의 유머는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끔 바라볼 기회를 만들고, 진지하고 엄격한 학자와 같은 느낌의 글이 아닌 자신의 독특한 취향을 과감히 드러내며 모두가 목에 힘주고 있을 때 유머러스하게도 핵심을 찌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그의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다채롭고도 신선한 표현에 수많은 독자들은 통쾌함과 참신함을 느낄 수 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에는 총 56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다. 모든 에세이에는 그가 자신의 일상에서, 대화에서, 책에서, 영화에서 만나고 경험한 이야기들이 녹아있다. 그는 자신의 글의 마지막에서 읽고 싶은 것을 읽는 게 독자의 특권이지만, 되도록 이 책에서 너무 그럴싸한 메시지를 읽어내지 않기를 염려한다. 인생의 확고한 의미에 대해서 설파하는 책이나, 한국을 부흥시킬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이나, 인류 문명의 향방에 대해 확실한 예측을 하는 책 따위는 읽고 싶지도 쓰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그는 이 책이 다만 우리 모두가 불확실성을 삶으로 받아들이며, 큰 고통 없이 살아가는 데 좀 더 즐겁고 풍요로운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찰나의 행복보다는 차라리 '소소한 근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그의 바람처럼, "왜 만화 연재가 늦어지는 거지", "왜 디저트가 맛이 없는 거지" 같은 '소소한' 근심을 누리는 건, 그것을 압도할 큰 근심이 없다는 것"이기에.



당신이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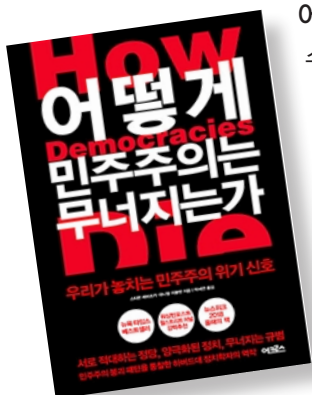
정혜신, 해냄출판사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만2천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고,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신의 사람 공부》 등의 책을 통해 독자와 소통해온 정혜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있음을 확인한 후 누구라도 심리적 CPR의 행동지침을 배울 수 있게 안내하고자 펴낸 『당신이 옳다』.

십 수 년 동안 거리의 치유자로서 국가폭력 피해자를 비롯,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온 저자는 공감 이야말로 어떤 치료제나 전문가의 고스펙 자격증보다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는 힘을 발휘함을 확인했고, 이 책에 그동안 과약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통찰과 치유 내공을 밀도 높게 담아냈다.

1장에서는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사회적 시선과 환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아픈 이유를 들여다보고, 2장에서는 우울증 등 진단이 남발되고 일상이 외주화 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심리적 CPR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공감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공감의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사람은 모두가 개별적 존재임을 환기시키고, 공감의 정확성을 높이는 경계 짓기를 제안하고, 5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욕구, 콤플렉스, 집단 사고 등 진정한 치유를 방해하는 공감의 허들을 짚어주며, 6장에서는 존재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유념해야 할 실천 치유 팁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보여준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저, 어크로스

미국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쓴 이 책은 민주주의 정치의 확립이 제도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오랜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 또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의 본질, 특히 그 태생적인 취약점이 무엇이며 내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한지 판별해볼 수 있는 지표와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현재의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권위주의 등으로 인해 위협을 맞고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협력과 타협을 모색했던 '민주주의적 규범'이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공화당의 하원의장인 뉴트 그리치(Newt Gingrich)가 공화당의 지배적인 정치전략을 '전시상대로서의 정치(politics as warfare)'로 만든 이래 두 정당 간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자연히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힘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호안정과 제도적 절제라는 보이지 않는 헌법의 가드레일이 무너졌다. 그러나 이를 법이나 제도로 강제해 고칠 방법은 없다. 민주주의는 많은 차이를 가지지 않은 경쟁자들이 타협과 대립을 반복하는 '상호 존중의 경쟁'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게 저자들의 지적이다.

위 책에는 해결책으로서 정당의 게이트 키퍼 역할과 민주적 규범을 다시 일깨워야하며, 구체적으로 공화당은 독일의 보수정당 기민련(CDU)를 벤치마킹하여 스스로를 개혁할 것을, 민주당은 극우화된 공화당처럼 극단적인 정치전략을 피하고 싸움의 범위를 연대와 민주주의 제도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코미디 인생 50주년 기념공연, 남산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 - 코미디언 배연정

배연정 개그 디너 콘서트, 구순의 어머니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5월 가정의 달 공연 기획

그녀는 1971년 MBC 공채 코미디언 1기로 데뷔하였다. 여러 다방면으로 재주가 많았던 그녀는 코미디언에 도전하기 전인, 1969년에 트로트 가수로 첫 데뷔를 하였고, 같은 해 연극배우로 데뷔하였다. 이듬해 1970년에는 또 다른 장르인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한 만능 예술인이다.

그녀는 코미디언으로 데뷔하자마자, 바로 코메디 프로 대명사인 『MBC, 웃으면 복이와요』, 『TBC, 고전 유머극장』, 『MBC, 일요일 밤의 대행진』 등 당대 가라성 같은 코미디 1세대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시절, 당당히 여성 코미디언으로 종합무진 TV방송사들을 누비고 다녔다. 그 당시 코미디 계에는 구봉서, 서영춘, 배삼용, 이주일, 송해, 박시명, 이기동 등 코미디 계의 전설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던 시기로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코미디언으로 데뷔하며 그들의 상대역으로 희극 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첫 데뷔가 트로트 가수인 만큼, 노래를 잘하기에 뮤지컬을 비롯하여 영화, 연극에도 가끔 출연할 즈음, 선배 코미디언들이 하나둘 타계하여 코미디가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무렵, 그녀는 빠르게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곤지암' 하면, '배연정 소머리국밥' 하고 떠올릴 정도로 요식업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여성 사업가로서도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곧,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닥쳐 그녀의 요식업이 힘들 시기 우울할 즈음, 그녀 특유의 긍정적인 배짱과 발빠른 사업수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또한, 그녀는 건강한 인생을 위하여 틈틈이 승마와 바이클, 산악 오토바이 등으로 활발한 운동도 하고 있다.

올해 그녀가 연예계에 데뷔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고자, 배연정 디너쇼를 준비하였다. 이번 공연에서 사회를 맡은 「엄용수」(코미디협회장)와 콤비로 토막극을 준비하고 있으며, 후배가수 「우연이」와 「박혜신」이 출연한다.

다함께 젊게 사는 법을 주창하는 그녀는 이번 무대를 위해 그녀의 애창곡과 풍성한 볼거리를 위하여 탕고춤까지 연습중이다. 또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남편도 무대에 오른다. 구순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녀로 소문난 배연정은 이번 5월 가정의 달 공연을 어머니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연습에 여념이 없다.

2019년 '코미디 인생 50주년 기념 디너콘서트'는 남산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5월31일(금요일) 오후6시30분부터 시작한다.

공연은 본고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제58기 회장을 역임한 김용식 교수의 주해실업영상사업단(02-561-6511, 02-564-4602)에서 맡아 진행한다.



콘서트 : 〈배연정 디너 콘서트〉
문의 : 주해실업영상사업단(02-561-6511)
기간 : 2018. 5. 3(금), PM6:30
[사진 및 자료 제공 : 주해실업영상사업단]



김용식(최고위 제58기 회장)

세계 최초 자기계발형 체험전시, 〈누보로망 삼국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GRAND OPEN

세계 최초로 삼국지가 팝아트와 컬러 테라피의 웃을 입고 '자기계발형 체험전시'로 관람객과 만난다.

국내 미디어아트 독보적 대표주자 본다빈치(대표 박상홍)의 새 전시 〈누보로망, 삼국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이하 〈누보로망, 삼국지〉) 오픈식이 지난 2월 14일 본다빈치뮤지엄 능동(어린이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누보로망, 삼국지〉는 세계 최초의 '자기계발형 체험전시'로 기획되어 오픈 전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지난 오픈식에는 이러한 뜨거운 관심 가운데 많은 주요 인사 및 '셀럽'이 방문하여 〈누보로망, 삼국지〉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날 〈누보로망, 삼국지〉 오픈식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장중화 중국문화원장, KBS 임병걸 미래사업본부 본부장, 이장우 성공경제포럼 이사장,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 더불어, 최근 〈라이프 온 마스〉에 출연했으며 새 tvN 드라마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로 시청자와 다시 마주할 배우 박성웅, YG 케이플러스 모델 박보성, 가수 길건 등이 참석하여 오픈식을 한층 더 빛냈다.

전시 공간은 총 8개의 테마로 이루어 졌으며, 〈역사의 시작〉부터 우정과 신의를 나타내는 〈맹세와 결의〉, 각 테마가 있는 영웅들의 방 〈영웅의 시대〉, 여자들이 사랑할 만한 공간인 제5장 〈매혹의 기술〉까지 다양하고 색다른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마지막 공간인 제8장 〈시대의 완성〉에서는 높이 6미터, 길이 12미터에 이르는 미디어 병풍월이 현대적인 아카이빙 형식으로 펼쳐져 있어 장관을 이룬다.

이번 전시는 '삼국지'라는 세계적인 아이콘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자기계발형 체험전시'를 적용한 특별한 사례로, 기존 누적 관람객 200만 명 이상을 달성한 '본다빈치타운' 연출 저력을 발휘하여 여러 관람객과 소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관객인 2030세대를 위한 꿈을 찾는 〈감성사진관〉 전시가 한데 어우러져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요소마다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다빈치(주)는 올 3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본다빈치 데이'로 정하고, 고등학생을 무료 입장시키는 '고등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고전의 이야기를 통한 자기계발 가이드를 제시해줄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본다빈치(주)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4차 산업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본다빈치(주)가 보유한 디지털 아트와 특허 및 저작권 확보를 기반으로 아트체인 거래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거래소를 통해 위탁받은 해외 유수의 실물아트 및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하고, 이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직접 콜렉터가 되어 아트작품의 가치를 소유하는 세계 최초의 온/오프라인 아트체인 거래소를 연내에 오픈할 계획이다.

이때 기축통화로 쓰일 BSD 코인은 비트코어 계열로서 비트 코인(BITCOIN)과 고슴도치(GOSMDOCHI)가 결합된 합성어 '비트슴도'의 줄임말이며, BSD의 귀여운 캐릭터는 현재 본다빈치(주) 전시장 포토존에서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본다빈치(주)는 〈모네, 빛을 그리다展〉, 〈르누아르: 여인의 향기展〉 등의 컨버전스아트 전시를 통해 서울에서만 누적 관람객 2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 문화예술 기업이다. 부산 본다빈치스퀘어에서는 만고호의 삶과 예술의 향연을 느끼는 〈만고호 빌리지展〉과 순간의 인상을 감각적인 공간에서 남기는 〈감성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8시 반까지 연장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전시 : 〈누보로망 삼국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문의 : 본다빈치(070.5121.6085)
일시 : 2019년 2월 21일 ~ OPEN RUN
사진 및 자료 제공 : 본다빈치(주)





석사과정 신입생 명단 (제63기)

국제관계학과



김소현



고태진



장지원



김남수



홍연성



정상원



채재광



장재홍



장용수

글로벌정치학과

글로벌정치학과



이지영



전종규



양윤모



정민규



장지훈

도시및지방행정학과



박성민



최경미



민병규



김혜주

도시및지방행정학과



김태호



김영진



한기수



박유승



최치현



최헌필



박진호



이지영



서상혁

경제정책학과

경제정책학과



전승관



최민



문충배



송근



이정운



최진



김현화



이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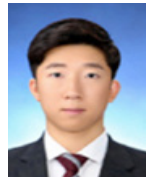
문경란

데이터통계학과

데이터통계학과



박준혁



오종민



안현민



변상현



김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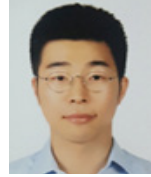
정주원



임현정



이동욱



이윤석

감사행정학과



이민지



하일범



박병호



김대엽



김진솔



전은경



조연주



이희민



천나영

조세재정학과

조세재정학과



유동길



정승훈



설동혁



이힘찬



이학주



심희섭



배선태



한준희



문형선

국토경제학과

국토경제학과



이광진



홍성택



김선수



이원일



박희연



윤용수



최고위정책과정 신입생 명단 (제64기)



강창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고준용
주식회사 시큐어링크
대표이사



김대중
대한지방재정공제회
감사



김도형
삼일회계법인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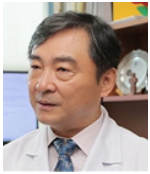
김상한
(주)SBS
전략기획실 부장



김성민
육군 제15보병사단
부사단장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김열홍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영선
(주)오엔디자인
대표이사



김용호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김재영
(사)커브스코리아
대표이사



김창균
의왕도시공사
실장



김태욱
공군 작전사령부
준장



남광규
고려대 SSK연구사업단
연구교수



박승운
지알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박연숙
탐위레공인중개사
소장



박영애
피엔테크
대표



박용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일현
비손파크 주식회사
대표



서재연
미래에셋대우증권
상무



손태화



손현덕
매일경제신문사
대표이사 전무



송 윤
법률사무소 숲
대표



송호종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수



오영실
방송인



유아미
(주)비디엔컨설팅
과장



윤동환
경희대학교 병원
교수



이명옥
(주)진주글라스
대표



이병관
서울경제TV
보도국장



이선아
숙명여자대학교
초빙대우교수



이수화
한솔요양원
대표



이종원
서울지방경찰청
광진경찰서
경찰서장



이창해
대진대
교수



이충섭
신생공업
이사



임휘
작사가



장춘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전장호
한국철도공사
처장



차재형
고려대학교 의대
연구교수



최영준
경희대학교 병원
부교수



추교운
천주교 의정부 교구
행주성당
주임신부



현 석
역삼세무서
서장



홍계성
KT
상무



홍상기
뉴욕선주식회사
대표



홍진기
자비스자산운용(주)
전무



홍경원
현대엠에소프트(주)
이사대우

원우님들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58대 조지도

